

## 한일 관계 동향(2020.10.11.~2020.10.24.)

### 1. 수출규제 관련

-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수출규제 완화 요청에 주한 일본대사는 한국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sup>1)</sup>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월 22일 주한 일본대사 초청 조찬간담회를 개최, 토미타(富田) 주한 일본대사에게 수출규제 완화와 한일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요청
    - 간담회에서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한-일 간 소부장 분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양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강조하면서 수출규제를 완화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
  - 이와 관련하여 토미타 대사는 “양국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한국 쪽에서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고 대답
    - 토미타 대사는 “수출규제는 한일 간 정책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며, 대화를 통해 진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한국이 WTO에 제소하면서 대화가 중단됐다”고 강조함.

### 2. 한일 관계 관련

- 스가(菅)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와 관련하여 타개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sup>2)</sup>
  - 스가 총리는 17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자민당의 가와무라 전 관방장관과 회담하고, 한일 관계의 현재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인식을 나타낸 뒤에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
- 토미타 주한 일본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의 회담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발언<sup>3)</sup>

1) 「수출규제 완화 요청에 일본대사 "한국이 환경 마련해줬으면"(종합)」, 「연합뉴스」, (2020. 10. 22)

2) 「菅首相 厳しい状況の日韓関係 「どのように打開するかが大事」」, 「NHK NEWS WEB」, (2020. 10. 16).

3) 「韓国与党代表 日本大使と会談 日韓関係の改善に期待示す」, 「NHK NEWS WEB」, (2020. 10. 22).

- NHK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10월 22일 토미타 주한 일본대사와의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관계의 중요성 및 세계 질서의 새로운 전개 등, 어떤 면으로 보나 한일 양국은 협력해야 한다”면서 악화된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를 표명
- 이와 관련하여 토미타 대사는 스가 정권 발족을 계기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답변

### 3.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월 21일 기자회견에서 도쿄올림픽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표명

- 일본 언론들은 10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대표가 2021년 도쿄올림픽이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계기가 되어야 하며, 강제징용 문제는 도쿄올림픽 전에 타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 점을 보도(NHK, 아사히)<sup>4)</sup>

-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이 대표는 “양국의 외교당국 간의 협의를 촉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이다.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발언

- 또한 강제징용 뿐만 아니라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양국 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

□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sup>5)</sup>

- 10월 22일 내각부 기자회견에서 가토(加藤) 관방장관은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및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앞으로도 한국 측이 조기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다. 이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언

4) 「韓国与党の知日派代表「徴用」めぐる問題 “協議通じ解決を”」, 「NHK NEWS WEB」, (2020. 10. 21). 및 「元徴用工問題 「東京五輪前に妥結を」 韓国与党代表」, 「朝日新聞」, (2020. 10. 22).

5) 首相官邸, 「令和2年10月22日(木)午前」, (2020. 10. 22), 홈페이지: [https://www.kantei.go.jp/jp/tyoukanpress/202010/22\\_a.html](https://www.kantei.go.jp/jp/tyoukanpress/202010/22_a.html) (접속2020. 10. 24)

#### 4.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관련

- NHK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서 한국 측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을 위한 한국 방문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sup>6)</sup>
  - 한중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의장국인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스가 총리가 한국 방문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회담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 일본 정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한국은 정상 간 만남이 현안 해결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중국은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구체적인 회의 일정 언급은 회피<sup>7)</sup>
  - (한국)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만나는 것이 현안 해결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며, 문제가 있다면 만나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중국)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기자회견에서 “3국 협력은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서 3개국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각국의 이익 및 지역의 기대와도 일치한다”고 발언
- 다만 정상회담 개최 일정과 관련해서는 “한국 및 일본 측과 외교적 루트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발언하는 것에 그침.

6) 「ことしの日中韓3か国首脳会議 開催困難か「徴用」めぐる問題で」, 「NHK NEWS WEB」, (2020. 10. 22).

7) 「日中韓3か国首脳会議 議長国の韓国「開催へ引き続き努力」」, 「NHK NEWS WEB」, (2020. 10. 14).